5위 수성에 갈 길 바쁜 KIA, '천군만마' 정해영 돌아온다

필승조 무너진 8월, 6승9패…역전패만 6차례

후반기 상승세 자랑한 NC에 4.5경기 차로 쫓겨

5위 수성에 갈 길 바쁜 KIA 타이거즈에 천군만마가 돌아왔다. 마무리 투수 정해영이 23일 돌아왔다.

KIA는 8월에 치른 15경기에서 6승 9패로 주춤하면서 5위 자리가 위태로워졌다. 8월 들어 9승 4패, 특히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로 매서운 상승세를 자랑한 NC 다이노스에 4.5경기 차까지 쫓겼다.

불펜이 흔들린 것이 KIA가 8월에 주춤한 요인 중 하나였다. 필승조가 줄줄이 이탈하면서 불펜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7월까지 15홀드, 16홀드를 따낸 장현식과 전상현이 지난달 말 나란히 부상을 당했다. 장현식은 팔꿈치 통증으로, 전상현은 우측 팔꿈치 인대 손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장현식과 전상현이 빠진 후 부담이 커진 정해영은 난조를 보였다. 이달 2일 대전 한화 이글스전에서 끝내기 홈런을 맞아 패전의 멍에를 썼고, 6일 광주 두산 베어스전에서는 1이닝 6실점으로 난타를 당했다.

힘겹게 버티던 정해영도 부상자 대열에 합류했다. 정해영은 오른 어깨 근육 염증으로 지난 11일 1군 엔트리에서 빠졌다.

필승조가 이탈한 KIA는 8월에 6차례 역전패를 당했다. KIA의 8월 불펜 평균자책점은 5.44로 리그 8위에 그쳤다.

6일 한화전에서 정해영이 무너져 두산에 역전패를 당한 KIA는 7일 두산전에서 5-4로 승리했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았다. 4-0으로 앞서가다 9회초 등판한 박준표가 흔들리면서 두산에 대거 4점을 내줬고, 결국 연장 끝에 힘겹게 승리를 낚았다.

10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전에서는 2-2로 맞선 연장 10회말 호세 피렐라에 끝내기 안타를 맞아 패배했다.

KIA는 17일 SSG 랜더스와의 홈경기에서는 4-3 승리를 거뒀지만 3-0으로 앞서가다 8회초 김재열이 흔들리면서 동점까지 따라잡혀 어려운 경기를 했다.

18일 광주 NC 다이노스전은 더욱 암울했다. 5-5로 맞선채 연장에 돌입했는데, 윤중현, 유승철, 고영창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11회초에만 대거 9점을 줬다. KIA는 11회말 3점을 만회했으나 결국 8-14로 졌다. KIA는 선발 자원인 임기영을 불펜으로 돌리는 고육지책까지 써야 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낸 KIA에 드디어 희소식이 도착했다. 정해영이 부상을 털고 돌아온다. KIA는 23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를 앞두고 정해영을 1군 엔트리에 등록할 예정이다.

정해영은 부상 직전 다소 난조를 보였지만, 올 시즌 25세이브(2승 5패)를 거둔 확실한 마무리 투수다. 정해영이 복귀하면 뒷문 단속이 한층 수월해진다.

정해영 뿐 아니라 장현식과 전상현도 속속 돌아올 예정이다. 장현식은 9월 초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장기 이탈이 우려됐던 전상현도 9월 중순에는 1군에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필승조가 이탈한 사이 불펜에서 좌완 이준영과 김정빈이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준 상황이다. 정해영과 장현식, 전상현이 돌아와 부상 이전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KIA 불펜은 한층 탄탄한 모습을 자랑할 수 있다.

구단 '매각설'에 흔들리는 K리그1 최하위 성남FC

신상진 성남시장 인터뷰서 '매각' 언급…올 시즌 성적 부진에 매각설까지 겹쳐

프로축구 K리그1 최하위 성남FC가 구단 매각설에 흔들리고 있다.

시민구단인 성남의 매각설은 최근 신상진 성남시장이 한 주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시작됐다.

신 시장은 "개선 의지도 없고 꼴찌만 하고 '혈세를 먹는 하마(성남FC)'를 유지하는 건 시민에 대한 배임"이라며 "성남FC가 비리의 대명사가 됐다. 이런 구단의 구단주를 하고 싶지 않다. 기업에 매각하거나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즌 K리그1 최하위(승점 18 4승6무17패)로 강등 위기에 몰린 성남 선수단은 구단주인 신 시장의 발언에 크게 동요했다.

특히 시즌 도중 매각설이 공식화하면서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용인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세미프로리그인 K3, K4리그로 내려갈 거란 말까지 나왔다.

사실 이번 위기는 성남 시장의 소속 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뀌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다. 여기에 전임 이재명 시장 시절 시청 비리 의혹이 커지면서 정치적 외풍까지 휘몰아친 상태였다.

설상가상 신 시장이 대놓고 성남 구단을 '혈세 먹는 하마'로 지칭하면서, 기업구단이던 성남 일화 시절을 포함해 33년 역사를 가진 프로축구 전통의 명가가 존폐 위기에 놓였다.

매각설에 성남 팬들은 분개했다. 서포터즈 '블랙리스트'는 지난 2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성명을 내고 "지난 2년간 성남FC가 정치면에 오르내리면서 우리의 땀과 목소리가 더렵혀졌다"며 "성남FC가 정치권 어용단체로 재창단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번 사건은 성남FC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흔들려온 시민구단 모두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과거 지방선거에선 일부 후보들이 축구단 해체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전임 지자체장이 키운 축구단을 지우려는 의도였다. 실제로 구단이 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지자체의 지원 규모가 크게 줄면서 위기를 맞았다.

또 축구와 관련 없는 인물의 낙하산 인사와 정치인의 개입으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민구단이 선거철만 되면,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는 이유다.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시민구단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다. 기업구단 역시 총수의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구조다.

해당 스포츠에 대한 총수의 관심이 식거나 덜한 후계자가 기업을 이끌면 기업구단도 존폐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축구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축구 산업 자체가 허약한 프로축구의 문제"라면서 "맹목적인 구단 늘리기가 지금의 시민구단 문제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벤치로 내려간 호날두…리버풀전 교체로 '9분' 굴욕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의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7)가 리버풀전을 교체로 뛰었다.

호날두는 23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트래포드에서 치러진 리버풀과의 2022~2023시즌 EPL 3라운드 홈 경기를 벤치에서 시작했다.

개막 2연패로 최하위에 머물렀던 에릭 텐 하흐 맨유 감독은 호날두를 벤치로 내리고 마커스 래시포드를 최전방 공격수로 내보냈다.

호날두는 팀이 2-1로 앞선 후반 41분 래시포드와 교체돼 그라운드를 밟았다.

후반 추가시간을 포함하면 약 9분 정도를 소화했고, 슈팅 1개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뉴시스

강진군청 2022 양양국제사이클 대회서 우수성적 거둬

개인전 옴니엄에서 금 1·동 1 획득…4km 단체추발 준우승 쾌거

강진군청 사이클팀(감독 박경춘)이 8·15 경축 2022 양양 국제사이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 동메달 1, 단체추발 준우승의 쾌거를 이루며 스포츠의 메카 강진을 알렸다.

대회 첫날 열린 남자일반부 단체추발 4km 경기에서 4분 10초 921의 기록으로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개인전 옴니엄 스크래치 경기에서 신동인 선수가 MOW Ching Yiin(HKSI Pro Cycling Team) 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신동인 선수는 개인전 옴니엄 제외 경기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하며 강진군 사이클 선수로서의 기량을 뽐냈다.

창단 이후 20년째 강진군청 사이클팀을 지휘하고 있는 박경춘 감독은 "우리군 선수들이 흘린땀과 노력이 우수한 성적으로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며 "성실히 연습하고 결과까지 내준 선수들이 자랑스럽고 앞으로 있을 경기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김주형 "어린 시절 목표 프레지던츠컵 출전 꿈만 같다"

김주형, 생애 첫 프레지던츠컵 출전

"임성재 형과 함께 꼭 이기고 싶다"

김주형(20)이 '프레지던츠컵'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린 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김주형과 임성재(24)는 지난 22일(한국시간) 프레지던츠컵 조직위원회가 공개한 대회 인터내셔널팀 출전 명단에 올랐다.

프레지던츠컵은 유럽을 제외한 세계 연합팀과 미국의 남자 프로 골프 대항전이다. 14회를 맞이한 올해 대회는 다음달 23일부터 나흘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열린다.

김주형은 첫 출전이며, 임성재는 두 번째 프레지던츠컵에 나선다. 임성재와 김주형은 각각 3위, 5위 자격으로 선발됐다.

김주형은 "정말 믿기지 않는다. 내가 프레지던츠컵에 뛸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꿈만 같다. PGA 투어 진출과 함께 꿈꿔왔던 프레지던츠컵 출전이 현실이 됐다. 인터내셔널 팀에 꼭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 응원이 필요할 때는 크게 응원하고, 세리머니 등으로 상대방의 기를 꺾어야 할 때는 과감하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나의 젊은 에너지가 팀에 작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 팀에서 가장 어리기 때문에 분위기로 살리고, 즐겁고 재미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 노릇을 하겠다. 팀 대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팀을 위해 내 에너지를 다 쏟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프레지던츠컵을 관람하고 대회 출전을 꿈꾸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김주형은 "11세에 처음 프레지던츠컵을 본 것 같다. 호주에 있었을 때도 가고 싶었지만, 표가 매진돼서 갈 수 없었다. 그래서 2015년에 한국에서 하는 경기를 가서 봤다. 그리고 2019년 호주에서 하는 대회를 봤다. 나도 언젠가는 이 팀의 일원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정말 먼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올 여름, 이 짧은 시간에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기뻐했다.

그는 "같은 팀에 성재 형이 함께 있는데, 항상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존재이다. 프레지던츠컵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했고, 이번에도 팀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한다. 같이 있다는 것이 든든하고, 많은 동기부여가 된다. 경기에 이겨서 함께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포부를 전했다.

뉴시스

고진영, CP 여자오픈 3년만에 타이틀 방어 나선다

세계랭킹 1위 고진영, 3월 시즌 첫 승 이후 5개월간 무승…최근 2경기서는 난조

여자 골프 세계랭킹 1위 고진영(27)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캐나다 퍼시픽(CP) 여자 오픈(총상금 235만 달러)에서 타이틀 방어에 도전한다.

고진영은 오는 25일(한국시간)부터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의 오타와 헌트 앤드 골프 클럽(파72)에서 열리는 CP 여자 오픈에 출전한다.

2019년 8월 이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린 고진영은 3년 만에 2연패를 노린다. 2020, 2021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대회가 열리지 않았다. 당시 고진영은 72홀 노보기 플레이를 펼쳤고, 26언더파를 몰아쳐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고진영은 지난 3월 HSBC 위민스 월드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후 5번이나 톱10에 이름을 올렸지만 아직 우승이 없다.

최근 2경기에서는 부진했다. 고진영은 지난 7월 트러스트 골프 위민스 스코티시 오픈에서 공동 71위에 머물렀고, 가장 최근 대회인 8월 6일 AIG 위민스 오픈에서는 컷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후 대회에 참가하지 않고, 컨디션 조절에 신경을 썼다.

고진영은 좋은 기억이 있는 대회에서 부진 탈출과 함께 시즌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고진영과 함께 이번 시즌 1승을 올린 전인지(28), 2017년 이 대회 챔피언 박성현(29), 김세영(29), 유소연(32), 이정은6(26) 등 15명의 한국 선수들이 도전장을 던졌다.

뉴시스